

메디컬투데이 > 의료

의료 서울시립서북병원, 의료취약계층에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 시작

메디컬투데이 남연희(ralph0407@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9-06-18 08:32:53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실은 ‘2019년 서울케어 건강돌봄 집으로 갑니다’ 일환으로 의료취약계층(퇴원환자, 장애인, 허약노인 등)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의료·복지·재활에 기반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북병원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은 퇴원환자에게는 퇴원계획 수립 후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분야 자원을 연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포괄적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 한다. 또한,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이 건강악화로 병원의 전문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 보건소 및 찾아가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본원 공공의료서비스실에 의뢰하면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방문 하여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병원 301사업을 통해 입원치료도 가능하다. 서북병원 건강돌봄 디딤돌 서비스는 지역 내 보건·복지와 병원의 의료가 유기적으로 대상자에게 제공 되어 틈 없는 의료·복지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서북병원 공공보건서비스실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등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의사는 지역 내 마을의사와 소통하며 퇴원환자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 공공의료서비스의 업무 총괄, 조정한다. 물리치료사는 지역 보건기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신체기능저하 재가장애인이나, 퇴원환자등에게 병원의 전문재활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원활한 사회복지귀를 돕는 의료·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해 사회적 기능회복을 지원한다.

서북병원 건강돌봄 디딤돌 서비스는 보건소와 찾아가는 동사무소 방문 대상자 중 전문 의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를 받아 진행되며 올해 은평구를 시작으로 마포구, 서대문구로 확대 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터

공익1인1회 뉴스시스
NEWSIS 수도권 > 서울

서울시립 서북병원, 의료취약계층 거주지 찾아가 진료

서북병원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

박대로 기자 | daero@newsis.com

등록 2019-06-17 17:50:19



【서울=뉴스시스】 10년 넘게 침대에서만 생활 P할머니 호흡재활운동 이후 숨 건강 회복. 2019.06.17.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립 서북병원은 의료취약계층(퇴원환자, 장애인, 허약노인 등) 가구를 찾아가 공공보건의료료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북병원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은 퇴원환자 특성에 맞는 포괄적 건강돌봄을 제공한다.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이 건강악화로 전문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 보건소와 찾아가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본원 공공의료서비스실에 의뢰한다. 필요시 공공병원 301사업을 통해 입원치료도 가능하다.

서북병원 공공보건서비스실은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의사는 지역 내 마을의사와 소통하며 공공의료 업무를 총괄한다.

물리치료사는 지역 보건기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신체기능저하 재가장애인이나 퇴원환자에게 병원 전문재활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을 돕는 의료·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한다.

서북병원 건강돌봄 디딤돌 서비스는 올해 은평구를 시작으로 마포구, 서대문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북병원은 "퇴원 후 열악한 환경은 건강악화와 사회적 고립을 가져온다. 이는 신체기능저하로 이어져 재입원을 하게 된다"며 "의료취약계층 퇴원 후 의료·복지·재활서비스는 악순환고리에서 벗어나 재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aer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하기

Dailymedi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서북병원,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돌봄 디딤돌사업' 진행

의료·복지·재활 기반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뉴스일자: 2019년06월18일 10시40분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서북병원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퇴원환자, 장애인, 허약노인 등)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서북병원 공공보건서비스실이 주체로 의료·복지·재활에 기반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북병원 공공보건서비스실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의사는 지역 내 마을의사와 소통하며 퇴원환자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의료서비스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물리치료사는 지역 보건기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신체기능 저하 재가장애인이나 퇴원환자 등에게 병원 전문재활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원활한 사회복지귀를 돕는 의료·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해 사회적 기능회복을 지원한다.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은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계획 수립 후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분야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포괄적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이 건강 악화로 병원의 전문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 보건소 및 찾아가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공공의료서비스실에 의뢰하면 방문해서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병원 301사업을 통해 입원치료도 가능하다. 지역 내 보건·복지와 병원 의료가 유기적으로 대상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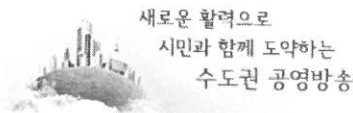
서비스는 보건소와 찾아가는 동사무소 방문 대상자 중 전문 의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를 받아 진행된다. 올해 은평구를 시작으로 마포구, 서대문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북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나와 지역 의료취약계층을 만나다 보면 생각보다 전문가의 작은 지원으로도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병원에서는 보편적 서비스가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유용한 치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dailymedi.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박성은기자 sage@dailymedi.com

창닫기



뉴스홈 전체 많이 본 뉴스 기획 여론조사 카드뉴스 SNS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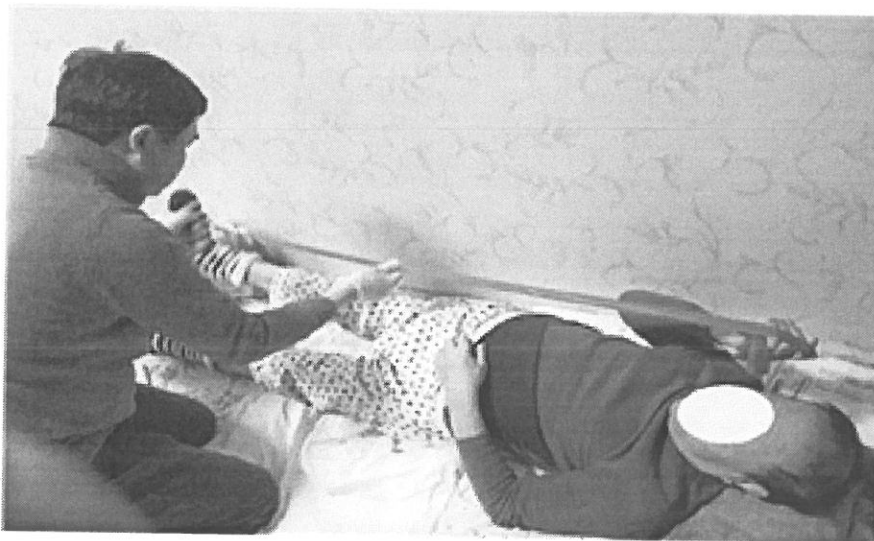


06월18일 06월17일 06월16일 06월15일 06월14일 06월13일 06월12일

많이본 뉴스

서북병원, 의료 취약계층 방문 돌봄서비스 본격 시행

공제림 기자 abcabc@seoul.go.kr | 기사입력 2019-06-18 08:02



서북병원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립 서북병원에서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돌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서북병원은 지난 2월부터 의료진이 장애인, 어르신 등 의료 취약 계층의 집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며 이달(6월) 은평구를 시작으로 마포구, 서대문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보건소나 찾아가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실에 의뢰하는 취약 계층으로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1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유한국당 경제경 문회 개최 촉구에 대한 입장은?
- 2 중국 쓰촨성서 규모 6.0 지진...6명 사망·75명 부상
- 3 전남 해상서 여객선 탑승객 바다로 뛰어내려...해경 수색중
- 4 여자월드컵 윤덕여호 분전, 조별리그 3패 탈락
- 5 경찰, YG 성집대 의혹 '정마담' 소환 조사
- 6 18일 국무회의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의결
- 7 구룡마을 개발 본래도...주민들 걱정 끊이지 않아

tbs인터뷰



카드뉴스

더보기



<힘내라 두박이> 간접 출연으로 고통받는 보행자들



<힘내라 두박이> "서울 시내 80곳은 '노인보호 구역'입니다"

SNS동영상

더보기

뉴스다시 듣기



지난기획 보기



tbs 아나운서	tbs 칼럼	뉴스 자료실
-------------	-----------	-----------

편성표 | 개인정보처리방침 | 공직자비리신고 | 저작권 정책 | 광고·협찬단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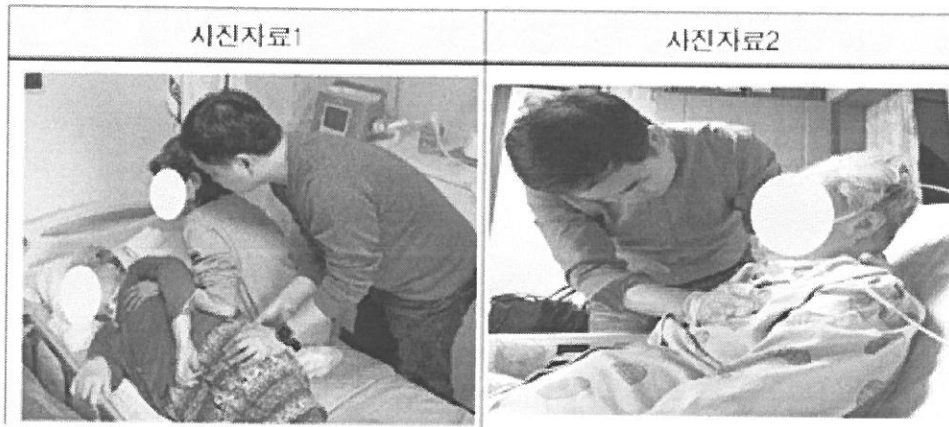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16 Seoul Traffic Broadcasting.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립 서북병원, 의료취약계층에 방문 돌봄 서비스 본격화

기사일력 2019/06/18 06:00 송고

○ 10년 넘게 침대에서만 생활 P할머니 호흡재활운동 이후 숨 건강 회복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립 서북병원은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북병원은 지난 2월부터 퇴원환자, 장애인, 허약노인 등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의 집을 찾아 의료·복지·재활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을 진행했다.

서북병원 관계자는 "그간은 시범운영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이달 은평구를 시작으로 마포구와 서대문구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은 지역 보건소나 찾아가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실에 의뢰하면 병원 의료진이 취약계층의 집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입원치료도 가능하다.

서북병원 공공보건서비스실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pr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18 06:0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채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사회 > 일반

서울 서북병원 의사·간호사, 의료취약계층 찾아 진료

지역 보건소 요청시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서울=뉴스1) 이현일 기자 | 2019-06-18 06:00 송고



서북병원(서울시 제공)©News1

서울 서북병원은 지역 보건소, 찾아가는 동사무소와 연계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소 및 동사무소 담당자가 병원 측에 의료취약계층 돌봄을 요청하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등 분야별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하면 입원치료도 지원한다.

먼저 은평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어 마포구, 서대문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북병원은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 돌봄 서비스도 지속 제공한다. 퇴원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분야 자원을 연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포괄적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ince 1987

환경미디어

‘서북병원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의료취약계층 전문의료서비스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6-18 14:55:19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북병원에서 결핵치료를 마친 이 씨. 후유증으로 폐기능의 절반이상을 상실 집 앞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숨이 차다. 이 씨는 퇴원 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한다. 병원치료는 끝났지만 숨이 차 2m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씨에게는 장을 봐 음식을 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이런 이 씨에게 서북병원은 “건강돌봄 디딤돌 서비스”를 통해 거주지 보건소, 복지관과 연계 퇴원 후 방문간호와 재활치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서북병원은 이씨에 맞는 전문 호흡재활운동을 보건소 방문재활 담당자와 공유 병원의 전문의료서비스를 지역에 전달했다.

퇴원 후 혼자 사는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밑반찬 배달 봉사자까지 이제 지속적인 관심 속에 집에서 보건,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됐다.

퇴원 후 열악한 환경은 건강악화와 사회적 고립을 가져온다. 이 문제는 신체기능저하로 이어져 재입원을 하게 된다. 의료취약계층의 퇴원 후 의료·복지·재활서비스 제공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악순환고리에서 벗어나 재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의료취약계층이 퇴원 후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역 복지와 의료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 서북병원은 지난 3년 동안 퇴원환자 중 의료취약계층(장애인)이 지역에서 잘 거주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활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보건 및 복지자원을 연계 했다.

하지만 건강악화로 신체기능저하가 심한 경우 지역 의료자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건소나 찾아가는 동사무소를 통해 본원의 전문의료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병원을 나와 지역 의료취약계층을 만나다 보면 생각보다 전문가의 작은 지원으로도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병원에서는 보편적 서비스가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유용한 치료가 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실은 2019년 “서울케어 건강돌봄 집으로 갑니다” 일

환으로 의료취약계층(퇴원환자, 장애인, 허약노인 등)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의료·복지·재활에 기반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

서북병원 ‘건강돌봄 디딤돌 사업’은 퇴원환자에게는 퇴원계획 수립 후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분야 자원을 연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포괄적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 한다. 또한,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이 건강악화로 병원의 전문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 보건소 및 찾아가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본원 공공의료서비스실에 의뢰하면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방문해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병원 301사업을 통해 입원치료도 가능하다. 서북병원 건강돌봄 디딤돌 서비스는 지역 내 보건·복지와 병원의 의료가 유기적으로 대상자에게 제공 되어 틈 없는 의료·복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북병원 공공보건서비스실은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의사는 지역 내 마을의사와 소통하며 퇴원환자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 공공의료서비스의 업무 총괄, 조정한다.

물리치료사는 지역 보건기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신체기능저하 재가장애인이나, 퇴원환자 등에게 병원의 전문재활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원활한 사회복지귀를 돕는 의료·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해 사회적 기능회복을 지원한다.

“서북병원 건강돌봄 디딤돌 서비스” 는 보건소와 찾아가는 동사무소 방문 대상자 중 전문 의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를 받아 진행되며 올해 은평구를 시작으로 마포구, 서대문구로 확대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미디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ecomedia.co.kr>]